



2014
1/20 (월)

The Fourth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그룹 토의(상급 실무자)



테마 1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

참가 지방정부	중국 : 산둥성 한국 :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일본 : 나가노현, 교토부, 돗토리현, 나라현,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나라현 덴리시, 나라현 가시하라시
강사	마에다 쓰토무 나라현 부지사

참가 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 개요



일본/돗토리현

돗토리현은 안심하고 출산·육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육아라면 돗토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역이 하나로 뭉쳐 노력하고 있다. 2010년 3월 '육아 왕국 돗토리 플랜'을 책정. 같은 해 9월에 '육아 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 지역에서 육아를 실천한다는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례나 정부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돗토리현의 독자적 시책을 과감하게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저출산 문제로 위기감을 느낀 젊은 10명의 현지사가 '육아 동맹'을 발족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식 환기를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일본/덴리시

덴리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한 쌍에 연간 5만엔을 상한으로 5년간 비용을 지급하는 불임 치료비 조성 사업, 민생아동위원이 출생 후 4개월까지 유아 가정을 방문하는 '안녕하세요? 아기 방문 사업' 등 모자 보건 사업, 육아 지원 홀 등에서 보육교사가 상주하여 육아 상담 등을 받는 '모임 광장', 엄마·아기 교실, 엄마·아기 정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가시하라시

가시하라시는 많은 젊은 육아 세대가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교육에 힘쓰고 있다.

중점 보육 시책으로서 ①유치원·보육원의 적정 배치 ②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충실 ③대기 아동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①의 적정 배치를 통한 '유치원·보육원 일체형 어린이집'을 정비하는 일이다. 취학 전 보육·교육의 향상을 위해 모든 시립 유치원·보육원에서 '가시하라시 취학 전 어린이 교육지침'을 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다.



한국/경주시

경주시의 경우, 연금 비수급 고령자와 독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 세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종래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경주시에서는 65세 이상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노령자초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을 희망하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고령자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자 복지관 신축 및 고령자 여가·복지 시설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입산부 건강 교실 운영과 출산 축하금 지급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교토부

교토부는 개호·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정든 고향에서 마지막까지 지낼 수 있도록 의료·개호·복지가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1년에는 의료·개호·복지·행정·대학 등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교토 지역포괄케어 추진기구’를 설립했다. 또 시읍면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의료·개호·복지의 연계 시책(①치매 종합대책 추진 프로젝트 ②지역재활지원 프로젝트 ③재택의료·간병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시읍면의 창의 연구를 통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나라현

나라현은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자를 늘려 건강 수명 전국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라 건강장수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보건·의료·복지·개호 등 분야별 관련 계획과 효과적으로 연동된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예방·생활 지원 등이 일체적·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모든 시읍면에 구축되도록 보건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 추진 지원 팀을 편성하고, 다양한 기관·직종의 네트워크화를 위해 시읍면 지원을 전개함과 동시에 현내 5지역에서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나가노현

남녀 모두 평균 수명 전국 1위인 나가노현은, 1인당 국민의료비와 고령자 1인당 의료비가 전국적으로 낮아 장수와 의료비의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 자원봉사자(식생활개선 추진원과 보건 보도원) 수가 감소하는 등 그동안 건강 장수를 지탱해 온 기반과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나가노현에서는 식염 섭취량 줄이기 운동과 육아 세대의 식생활 개선 등 ‘건강증진 현민운동’의 전개, ‘현립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한 주산기 의료 체제·소아 의료 체제의 충실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다자이후시

다자이후시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개호·의료 등의 연계를 도모하여 서로 돕는 지역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지원 센터를 3곳 개설해 광장·상담·강좌·아기 방문 등 육아 상호 원조 활동을 전개하는 ‘패밀리 서포트 사업’의 전개,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 대한 ‘긴급 통보 장치’ 지급, 지역 주민이 자주적으로 기획·실시하는 ‘건강 페스티벌’ 개최 지원, 당뇨병 중증화 예방을 위한 보건 지도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경기도

경기도의 출산율은 1.35로 출산율의 전반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같다.

- ①결혼·임신·출산에 관한 사회 전체의 관심 모으기와 인식 개선 사업, 취업 여성과 맞벌이 부부의 가정 보육 교사 제도 등 출산·육아에 유리한 사회 환경 조성
- ②고령자의 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고령자 생활의 질을 높이는 체제 구축
- ③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과 취직 알선



한국/전라남도

전라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64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 전국 1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임신부 전용 주차장 설치 등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
- ②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남운동본부’ 운영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기업 문화 정착 사업’
- ③ 보건소의 임신부·영유아 등록 관리와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중국/산둥성

산둥성은 2015년 합리적인 배치, 적당한 규모, 다양한 형식과 기능을 갖춰 대부분의 고령자 요구를 충족하는 사회 개호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 12월 ‘고령자 사업 발전 가속에 관한 의견’을 공포. 산둥성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개호 사업과 고령자 산업의 발전 가속에 대한 전략을 내놓았다.

고령자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1)고령자 산업의 계획 배치 2)고령자 상품 개발 3)고령자의 소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 관



마에다 쓰토무 나라현 부지사

급속한 고령화·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 개호의 한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개호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응이 한·중·일 고령자 지원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 각국 지방정부에서는 인재 육성, 지역의 상부상조, 개호 예방에 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호 직의 보수 개선을 통한 인재 확보가 공통의 과제로서 인식되었다. 또 개호 서비스를 보완하는 지역의 상부상조를 살펴보면, 한국·중국은 비교적 종래의 지역 커뮤니티가 기능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역포괄 케어의 추진으로 부현과 시정촌의 역할 분담 증대가 과제가 되고 있다.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식생활개선 추진운동, 건강지도 활동, 치매예방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개호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한·중·일의 인식과 대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저출산화 과제가 한 자녀 정책의 완화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출산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합계특수출생률의 향상을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출산에 관한 여성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출산을 자체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장애를 없애는 일이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구체적 대책으로서, 지난해 회합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두터운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여성의 취업 대책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테마 2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참가 지방정부	일본 : 야마나시현, 기후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나라현 아스카무라
강 사	구스미 도키오 니가타현 미쓰케시장

강사 연설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구스미 도키오 니가타현 미쓰케시장

인구 감소 사회에서 지역경제의 진흥과 고용 확보는 큰 과제이며 일본은 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동아시아 각 도시들도 언젠가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그런 가운데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만들기에서 ‘지역 부흥’으로의 의식 변혁으로, 이 관점을 가진 지역 만들기 여부가 향후 차이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에도 시대까지 일본의 연호에는 토지(장소) 이름이 붙어 있었다. 메이지 이후는 이른바 ‘도쿄 시대’라 말해도 좋다. 그러나 지금 중심지 도쿄의 역할 한계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이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

지방은 풍족한 자연과 구급·의료 체제, 개호 시설이 충실하고 육아, 고령 시대를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거주 환경도 있다. 또 공조 커뮤니티와 지역방재조직·소방단이 형성되어 최근에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본사가 도쿄에 집중하는 특이한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IT 시대를 맞아 그 재검토가 가능해졌다. 24시간 배우는 환경이야말로 지역에서 구축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미쓰케시에서는 ‘건강·행복(健幸)’을 키워드로 지방의 자립을 목표로 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심부에는 독거자나 고령자가 모이도록 이주 유도 정책을 전개하여 걸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취약은 일정 조건으로 지역을 설정하여 육아·교육의 장으로 정비한다. 30년 후에는 많은 사람이 다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문화 전통의 계승과 학교 존속, 소방단 유지를 도모한다.

2009년에 설립한 ‘스마트 웰니스시티(SWC: 건강·행복도시) 수장연구회’는 9개 시에서 41개 구시읍으로 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그중 7개 시가 공동 신청하여 SWC 종합특구로 지정되었다. 인구 감소 사회, 저출산·고령화 속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 ‘허용 가능한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지역의 이해와 합의를 얻어 계속 도전해 나가고 싶다.



참가 지방정부의 리저널 리포트 개요



일본/야마나시현

저출산·고령화를 배경으로 한 국내시장 축소, 대기업 철수, 현내 사업소 폐쇄,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급속한 수요 확대 등에 대해, 야마나시현에서는 하청 수주형 기업 체질의 극복(중소 기업자들의 공동 수주체 형성을 위한 지원 등), 성장 분야 산업에 대한 참가 촉진(대학·의료 현장, 이미 성장 분야에 참가 중인 기업과의 제휴 촉진 등), 해외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 획득(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국내 사무소 유치, 이용·활용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쿠시마현

도쿠시마현은 2011년 지상파 디지털화의 대응으로 현 전역에 광섬유와 인터넷 통신 환경을 동시에 정비하여, 전국 굴지의 브로드밴드 환경을 구축했다. 같은 해에 수도권 ICT기업의 협력을 통한 실증 실험으로 본사와 동등한 환경에서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풍부한 자연’과 ‘전국 굴지의 브로드밴드 환경’이 공존하는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빈집과 휴교·폐교 등 유휴 시설을 기업의 ‘새틀라이트 오피스’로 활용하는 기업 유치 정책을 실시. 진출 기업이 지역과 함께 어우러져 지역 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임하고 있다.



일본/기후현

기후현에서는 지역을 뒷받침하는 현역 세대(15~64세)의 감소로 소득·소비·매출 등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현 성장·고용 전략’을 책정하여 항공 우주와 의료 복지 기기 등 성장 분야의 집적과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또 3대 도시권을 겨냥한 여행상품 마련과 고객 유치 PR 등을 통한 ‘관광 산업 만들기’도 추진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기후현 종합인력 챌린지 센터’를 중심으로 근로 의욕이 높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기회 창출과 고용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나라현

나라현은 현내에 취업할 기업이 적고 현내 소비도 저조한 가운데, 급속한 인구 감소·고령화로 향후 현의 주요 자부 재원의 하나인 개인 현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에서는 투자·소비·고용이 현 내에서 순환하는 자연 발생형 산업 진흥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방(漢方) 메카 추진 프로젝트’와 기업 입지 지원 등 지역 산업의 지원·창출, ‘나라 브랜드’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현내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고령자 인재뱅크’와 ‘무료 직업 소개소’ 설치 등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시마네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는 시마네현의 관광 산업은 향후 지역 경제의 주역이 될 산업 분야로 고용면에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고지키’ 편찬 1300년(2012년), 이즈모타이샤 ‘헤이세이 대천궁(본전 수리에 따른 천궁·2013년)’을 계기로 현의 존재감을 전국에 알리며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신들의 나라 시마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어 대도시권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도부터는 ‘인연’을 키워드로 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연의 나라 시마네’ PR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